



식품·유통업계  
주춤 키워드는  
책임경영, 신사업  
니



Life

제약·바이오업계  
골다공증 치료제  
경쟁 예고  
L2

2025년 10월 30일 (수)



# 현대차, GBC 내 시민 위한 ‘대규모 도시숲’ 조성한다

‘축구장 2배’ 규모 녹지공간 조성  
지속가능·공공성 상징 공간으로  
타워동엔 친환경·AI 기술 등 접목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가 대규모 도심 숲 형태의 시민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녹지공간은 서울 랜드마크가 될 GBC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역할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19일 지난 2월 서울시에 접수한 GBC 개발계획 수정 제안서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GBC는 242m 높이의 54층 타워 3개동과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저층부 2개 동으로 조성된다. 또 단지 중



현대차그룹 GBC 디자인 조감도.

/현대차그룹

양에는 시민들에게 개방된 대규모 녹지공간이 들어선다.

현대차그룹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

운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최신트렌드인 유연하고 수평적인 공간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의 도시 품격

을 높이고, 시민들의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구성 단계부터 녹지공간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도심 숲 형태로 조성되는 개방형 녹지공간은 은행나무 단일 수종으로 군락이 형성될 예정이다. 민간이 개발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2배 크기(1만 4000㎡)에 달한다.

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GITC) 지상 광장에 인접해 강남 도심권에서 서울광장(1만3207㎡) 2배 크기의 시민 공유 공간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GBC의 주 건물인 타워동은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3개동이 서로 엇갈리도록 단지 후면에 들어선다. 타워동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이 모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 등이 접목되고, 공유 및 협업에 최적화된 유연한 업무공간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장기 비즈니스 출장 수요 등에 대응하는 호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GBC 디자인은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맡으며 영국 블룸버스 유럽 본사와 미국 애플 파크 등을 건축한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GBC 디자인을 총괄한다. 현대차그룹은 3월 중에 서울시와의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한국GM, 세계 최대 서비스센터 서울서 공개

영등포구에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동시에 최대 100대 정밀진단 가능  
“10년 뒤에도 고객이 찾도록 할 것”

“한국은 고객 유지율이 높은 만큼 10년 뒤에도 우리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윌리엄 헨리 GM 해외사업부문 전무)

한국GM이 지난해 7월 오픈한 세계 최대 규모의 GM 직영 서비스센터를 공개했다. 윌리엄 헨리 GM 해외사업부문 전무는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GM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투어에서 “고객과 소통”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GM이 직영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이 유일하고 세계 최대 규모를 갖췄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개소한 개소한 서울서비스센터는 지하 3층, 지상 8층 구조로 연



윌리엄 헨리 GM 해외사업부문 전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GM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투어에서 국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한국지엠

면적 2만6252㎡(7941평) 규모다. 기존 규모(1만725㎡) 대비 245% 넓어졌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과 직원들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곳에서는 차량을 올려 정비할 수 있는 리프트인 스톨을 총 62개 설치했다.

주차공간도 180대까지 가능하며 고급 휴게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하루 최대 100대의 차량을 동시에 정밀 진단 및 수리가 가능하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단순히 규모만 늘린 것이 아니다.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이 별도 수기로 접수하는 방식을 거치지 않고 차량 안에서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인’을 도입했다. 접수 시간은 최장 10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으며 방문객은 차량에서 정비사에게 요청사항을 전달한 뒤 휴게실에서 간단한 다과를 즐기면 된다.

이처럼 한국GM이 국내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GM 내에서 한국 시장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최근 향간에 떠돌던 ‘한국철수설’도 일축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양성운 기자

## 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대한상의·한경협 등 국회서 기자회견  
기업현장 혼란, 소송남발 등 부작용 커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

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역대 최대 규모 ‘서울모빌리티쇼’ 내달 개막

BYD, 로터스 등 12개국 451개사 참가

“전통적인 모터쇼를 넘어 기술의 경계를 허물어 글로벌 모빌리티 행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진화한다.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전시회에는 12개국, 451개 사가 참가한다”며 “참가기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4월 3일 언론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강남훈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

은 “올해는 30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서울모빌리티쇼의 올해 주제는 ‘공간을 넘어(Mobility Everywhere)’와 ‘기술은 넘어(Beyond Boundaries)’다. 올해 서울모빌리티쇼에는 12개국 451개사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6 | 해질 / 18:44

3월 20일(木)  
음력 : 2월 21일

수도권 날씨  
1 ~ 1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 연천 -2/15
- 동두천 -2/15
- 파주 -3/14
- 가평 -3/15
- 서울 1/15
- 양평 -2/16
- 인천 3/11
- 수원 1/13
- 용인 1/13
- 평택 -2/16
- 백령도 5/1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허리 통증’ 이정후, MRI 결과 이상 없다...“구조적 손상 없어”  
▲부상 우려되는 메시,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명단서 제외

▲NBA 골든스테이트, 밀워키 꺾고 시즌 40승 고지 밟아  
▲오페라단연합회 제10대 이사장에 성악가 김수정 선출

▲국가유산청, 양주 회암사지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피츠버그 배지환, 시범경기 교체 출전해 삼진...타율 0.424